

2014년 2차 경찰직 기출

2014년 8월 30일 시행

점수

이름:

1. 아래의 유물들이 만들어졌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개껍데기 가면



뿔뚜껑토기



갈돌과 갈판

- ①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 ②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
- ③ 발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 ④ 혈연에 바탕을 둔 씨족을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 하였다.

2. 아래의 풍속을 지닌 나라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거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 ①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 ②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③ 혼인을 정한 뒤 신랑은 신부 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함께 살다가 돌아오는 풍속이 있었다.
- ④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3. 아래 백제의 왕릉과, 여러 유물들이 상징해주는 무덤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릉 내부



금제 관장식



돌집승

- ①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화려한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 ② 무덤 속에는 왕과 왕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새겨진 지석이 있었다.
- ③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 ④ 22개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국왕이 묻혔다.

4. 신라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령은 각각 700 ~ 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 ② 군주는 주 단위로 설치한 부대인 정을 거느렸다.
- ③ 전쟁과 사냥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화랑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④ 8세기 후반 이후 경제기반을 확대한 진골귀족들은 사병을 거느렸다.

5.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신라 이후에도 전쟁 포로로, 혹은 진 빛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 ② 골품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유지되었다.
- ③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 ④ 관등제와 관직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크게 제약을 받았다.

6. 통일 이후 삼국 불교의 유산을 토대로 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더하여 신라 불교는 다양하고 폭넓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존재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② 진표는 법성종 승려로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 ③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 ④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7. 신라시대의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대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 ②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원성왕대에는 유교경전의 이해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 ④ 최치원은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안 10여조를 건의하였다.

8.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 ② 수군으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지역에서 당나라 군대와 격돌하기도 하였다.
- ③ 선왕 대에 지배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 ④ 전성기를 맞은 발해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9. 고려시대 인쇄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 ② 일찍부터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으며, 후기에는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 ③ 고려 대장경의 판목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 ④ 몽골과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에는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10. 고려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의 만월대 궁궐터는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 ②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기둥이 잘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 ③ 상감기법을 도자기제작에 응용해서 만들어진 상감청자는 무늬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 ④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 시기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11. 고려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외 무역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으며, 송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하였다.
- ②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 송나라로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는 한편,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 ③ 고려와의 무역을 추구했던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수은, 황을 가지고 와서 식량, 인삼, 서적과 바꾸어갔다.
- ④ 북방의 거란과 여진에게는 은, 모피, 말을 수출하고, 고려는 농기구, 곡식을 수입하였다.

12. 무신정권에 의하여 문벌귀족정치가 붕괴된 이후에 사대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사대부 세력의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자제들로, 무신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다.
- ② 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인 이규보는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③ 충선왕대에 사대부와 함께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원의 간섭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 ④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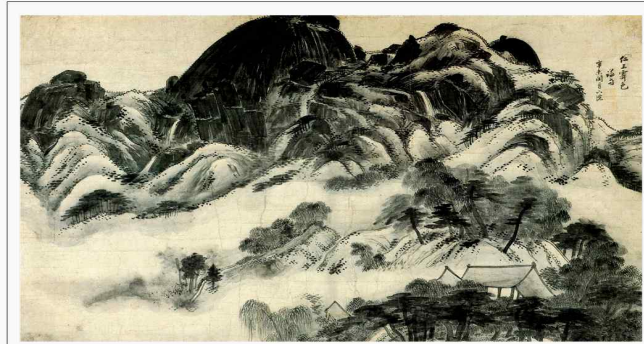
13. 조선 초기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민족 문화인 한글의 창제와 사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글 창제가 요청된 것은 민본사상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이념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② 서리들이 행정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에 한글을 시험으로 치르게 하였다.
- ③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왕실 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편찬하였다.
- ④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글로 간행될 수 없었다.

14.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은 도덕과 의리의 기본 서적인 『대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여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②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 ③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 ④ 지방사족은 향촌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15. 아래는 18세기 미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왕제색도'이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양화 기법을 수용하여 남녀 사이의 애정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 ②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 ③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진경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 ④ 고금의 필법을 연구하여 곧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갖춘 글씨체를 창안하였다.

16. 동학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조직을 정비하였다.
- ② 1860년대에 등장한 동학은 사람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 ③ 동학이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이유로는 교리에 주문과 부적 등 민간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④ 제3대 교주인 손병희는 친일세력을 내쫓고,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창시된 대중교와 통합하여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였다.

17. 대한제국 말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문화를 지키려 한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 ② 백남운에 의해 대두된 사회경제사학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③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④ 외국의 건국과 흥망의 역사서를 번역하여 민족의 독립의지와 역사의식을 높이려 하였다.

18.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수용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문국에서는 신문을 발간하였고, 기기창에서는 서양무기를 제조하였다.
- ② 근대 교통시설로서 서울에서부터 전차와 기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 ③ 서양의학이 보급되면서 근대의료시설인 광혜원을 설립하여, 지석영에게 책임을 맡겼다.
- ④ 서울에는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다.

19.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민족 말살을 위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편수회는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의 왜곡에 앞장섰다.
- ②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을 통해서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 ③ 193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규정하고, 최초의 대학기관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 ④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종교 교단과 지도자들을 박해하였다.

20. 광복 이후 전개된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0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 ② 1972년에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 ③ 1985년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 ④ 2000년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2014년 8월 30일 시행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총평 및 추후 학습방법

★ 2014년 제2차 경찰공무원(일반 공채, 1이경비단) 채용시험 - 출제 파트 분석

단, 보기와 내용이 여러 파트에 걸쳐 있을 때는 정답을 기준으로 분류함

고대이전		고대	중세	근세	근대태동기	근대	현대
2문항	정치	3문항					1문항
	경제		1문항				
	사회	1문항		1문항			
	문화	2문항	3문항	1문항	1문항	4문항	

★ 2014년 제2차 경찰공무원(일반 공채, 1이경비단) 채용시험 - 총평

2012년 수사과목 폐지와 경찰 한국사 신설에 따른 2012년 3차에 걸친 경찰 한국사의 난이도는 일반 교정직에 비해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4년 필수과목 전환 예고에 따라 2013년 1차 시험부터 난이도는 급상승하였고, 금년 1차 시험까지는 경찰간부 한국사문제와 비교될 만큼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시험은 고등 한국사 수준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다. 고1 수준의 한국사로서 무리 없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7차 국정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문장의 애매모양이 없었다.
- 2) 박스 형태로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는 문항이 없었다. 예) 송 몇 개인가?, 보기의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등
- 3) 2012년 이후 기술문제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 제시가 없었던 반면 이번 시험에서는 3문항에서 출제되었다.
- 4)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 3문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가 17문제 출제되었다.
- 5) 그 동안 출제 비율은 높지 않지만 변별력으로 작용해왔던 문화사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 6) 고대사의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았다.

위의 1) 2) 4) 특징 등이 이번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전반적인 시대 흐름, 이해와 더불어 해당 주제의 주요 단어 및 문장의 암기와 시기 구분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 2014년 제2차 경찰공무원(일반 공채, 1이경비단) 채용시험 - 추후 학습방법

이번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7차 국정교과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어질 상세 해설은 1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90%이상 교과서 내용 그대로를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시험과 비슷한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방대한 분량의 기본서가 아닌 350페이지 분량의 국정교과서가 시험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본서는 심화 자료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방대한 분량을 간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 한국사 출제 방향과 난이도가 일정치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고등학교 수준의 근현대사 실력이면 충분히 만점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제외하고 작년과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까지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은 국정교과서 내용정리로 시작, 마무리하고 중간과정에서 기본서의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반적인 시대흐름과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주요 주제에 대한 중요 단어 및 문장의 암기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문제를 보면 안다는 식의 암기가 아닌 보지 않고도 주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끝장테스트를 통해 끊임없이 한국사를 끝장내도록 합시다!

셋째, 기출 문제 유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시험이든 기출 문제는 그 시험의 바이블입니다. 기출문제는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조금 변형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빈출 되는 주제가 한국사의 주요 주제이며, 기출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학습해야 하는 한국사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가 아닌 최근 3개년 이상의 모든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가 여러분을 한국사 만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넷째,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 모르는 걸 물어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한국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교수실을 방문하거나 네이버 카페, 문자, 카톡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단지 한국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습관이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가슴속에 의지와 열정, 긍정의 힘이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2014년 8월 30일 시행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정답 및 상세 해설

1. [정답 및 해설] ④

◎ 제시된 유물은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다.

♣ 신석기 시대의 사회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였다. 이들 씨족은 점차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족외혼). 그러나 부족 사회도 구석기 시대의 무리 사회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 오답노트

- ①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를 보여 주는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상원의 검은모루동굴,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자리, 담 자리 및 불 댄 자리가 남아 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 ②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 →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그전보다 발달하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 ③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 **청동기(시작)·초기철기**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흙자루, 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청동기 시대 집터 유적인 부여 송국리와 여주 혼암리에서는 탄화된 벼씨가 발견되어 이시기 일부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2. [정답 및 해설] ③

◎ 제정분리 사회인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 초기 철기시대 국가 - 삼한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 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다. 삼한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한편 삼한에서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상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천 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 오답노트

- ③ 혼인을 정한 뒤 신랑은 신부 집 뒤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함께 살다가 돌아오는 풍속이 있었다. → **고구려**의 결혼 풍습인 **서옥제**(씨족 사회의 전통, 지배층의 결혼 풍습, 노동력 중시)에 대한 설명이다.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신부 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신부와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신부의 부모가 별채에 가서 자도록 허락한다. ...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3. [정답 및 해설] ③

♣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1971년에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려 주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식, 무덤의 수호격인 돌집승, 귀고리, 팔찌 등 3000여 점의 깨문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무령왕릉 내부

널방을 벽돌로 쌓은 양식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무령왕릉 지석

무덤의 주인과 관련된 기록이 적혀있다.

♣ 백제의 무령왕(6세기 초반)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하여 외교 교섭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 오답노트

- ③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 백제의 **비유왕**(5세기 전반)은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의 눌지왕과 나·제 동맹(433년)을 체결하였으며, 백제의 **성왕**(6세기 전반)은 대외적으로 일본에 노리사치계를 보내 불교를 전수하고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4. [정답 및 해설] ①

♣ 삼국의 군사조직

삼국은 최상급 지방 행정 단위로 5부(고구려, 지방장관-육살), 5방(백제, 지방장관-방령), 6주(신라, 지방장관-군주)를 두고 지방 장관을 파견하였다. 그 아래의 성이나 군에도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말단 행정 단위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세력을 촌주로 삼았다. 삼국의 지방 행정 조직은 그대로 군사 조직이기도 하였으므로 각 지방의 지방관은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따라서, 삼국 시대 국가의 주민 통치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백제의 방령은 각각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신라의 군주는 주 단위로 설치한 부대인 정을 거느렸다. 신라에는 정 외에도 서당이라 불리는 군대가 있었다.

♣ 화랑도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이 조직은 삼국통일의 어려운 시기에는 강한 무사도정신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회의 중견 인물을 양성하는 교육적인 기능과 대립된 계급 간의 갈등을 조절·완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 신라 하대의 모습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오답노트

- ① 방령은 각각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 방령은 5방에 파견된 **백제**의 지방관(행정)이며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5. [정답 및 해설] ①

♣ 골품제

삼국시대를 비롯한 고대국가에서는 관등제와 관직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신분제의 의한 제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골품제였다. 신라의 관등제는 골품제(骨品制)와의 연관 하에 운영되어 관등의 승진이 골품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었다. 진골(眞骨)만이 승진에 제한이 없었고,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승진이 제한되었다.

또한 혈연에 따라 정치적 제한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 백제의 지배층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 오답노트

- ① 통일신라 이후에도 전쟁 포로로, 혹은 진 빛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삼국시대 천민은 노비와 촌락을 단위로 한 집단 예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비는 대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귀족에게 진 빛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 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으나, **통일 신라 이후로 정복 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점차 전쟁 노비는 소멸되어 갔다.**(통일 신라 이후에도 빛을 갚지 못하여 노비(부채노비)가 되는 경우는 많았다.)

6. [정답 및 해설] ②

♣ 원효

- 불교의 이해기준 확립: 원효는 당시의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 화쟁사상: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종관파와 유식파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 불교의 대중화: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하여 민중을 위한 불교로 '나무아미타불'만 염불하면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정토종)을 보급하였고 민중의 환영을 받았다.
- 법성종의 개창: 교종의 하나인 법성종을 창시하였으며, 화엄학의 이론 연구에 힘써 『화엄경소』 등을 남기기도 하였다.

♣ 의상

- 화엄종 창설: 진골 출신으로 당에 유학, 지엄의 문하에서 현수와 더불어 화엄종을 연구하고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그 후 국가 지원을 얻어 부석사를 짓고 화엄종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 화엄 사상: 일즉다 다즉일(日即多多即日)의 원융사상으로 하나 속에 만물을 아우르며,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결국 하나로 귀결시킨다는 사상으로 전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뒷받침 하였다.
- 교단 형성: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 불교의 대중화: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고,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데 기여하였다.

♣ 혜초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중에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기기도 하였다. 현재는 그 일부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오답노트

- ② 진표는 **법성종(→원효)** 승려로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의상)을 이끌었다. → 진표는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의 전파에 힘썼던 승려이다. 법성종의 개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7. [정답 및 해설] ①

♣ 신라시대의 유교

□ 국학

신라 중대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경덕왕 때에는 국학을 태학이라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이것은 충효 일치의 윤리를 강조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공자 화상

성덕왕 때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10철(哲) 그리고 공자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하였다.

□ 독서삼품과

신라 하대 원성왕 때(788년)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최초의 관리 채용 제도로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이바지 하였다. 독서삼품과는 골품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양하려는 것이었으나 골품제와 진골귀족의 반발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 최치원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시무10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 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현존 최고(最古) 문집인 『계원필경』과 『토황소격문』, 4산비문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으며, 『제왕연대력』, 『중산복게집』 등이 있다. 최치원은 유학자이면서 불교와 도교에 조예가 깊었으며 후세에는 삼교(유·불·선)를 회통한 학사로 추앙받았다.

□ 임신서기석

진평왕 때 두 화랑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3년 내에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을 공부 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어 **유교 경전 학습과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 오답노트

- ① 신문왕대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 **경덕왕**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및 해설] ③

♣ 발해

□ 일본에 외교문서에 나타난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무왕은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였으며, **문왕은 스스로를 고려 또는 고려국왕을 지칭하였으며 일본이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도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였다.**

□ 무왕 대 외교관계

대조영의 뒤를 이는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를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선왕 대 영토확장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15부 62주]도 정비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 오답노트

- ③ 선왕 대에 지배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 **문왕**에 대한 설명이다.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9. [정답 및 해설] ②

♣ 고려시대 목판인쇄술의 발달

□ 고려 대장경의 판목

신라 때부터 발달한 목판 인쇄술은 송의 판본의 영향을 받아 고려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다. 고려 대장경의 판목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 단점

목판 인쇄술은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활판 인쇄술보다 못하였다.

♣ 고려 시대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달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후기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 발달 배경

고려 시대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 청동 주조 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당한 잉크와 종이의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 상정고금예문 인쇄(고종, 1234년)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기록에 의하면 몽골과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에는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 직지심체요절 간행(우왕,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았다.

💡 오답노트

②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후기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10. [정답 및 해설] ④

♣ 고려시대 건축

고려 시대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으나,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개성 만월대 궁궐터를 보면 당시 궁궐 건축을 짐작할 수 있다.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경사진 면에 건물들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건물들이 층층으로 나타나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목조 건축물로 주심포양식과 배흘림기둥이 잘 어우러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 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고려시대 상감청자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고려의 청자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생산되고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구워졌는데, 전라도 강진과 부안이 유명하였다. 특히, 강진에서는 최고급의 청자를 만들어 중앙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 고려시대 탑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이 보편화되었다.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며, 고려 후기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세조 대 원각사지 10층 석탑)로 이어졌다.

💡 오답노트

④ 세조 때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전기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11. [정답 및 해설] ④

♣ 고려시대 무역 활동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송 상인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할 만큼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에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은 은, 모피, 말 등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오답노트

④ 북방의 거란과 여진에게는 농기구, 곡식을 수출하고, 고려는 은, 모피, 말을 수입하였다.

12. [정답 및 해설] ②

♣ 성리학의 수용과 신진사대부의 성장

□ 신진사대부의 성장

무신집권기 이래 지방의 향리 자제들을 중심으로 경제력과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신진 세력들은 원의 간섭과 측근 정치로 인하여 정치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대부분 공민왕 때 개혁 정치에 힘입어 신진 사대부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 성리학의 수용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향으로 충렬왕 때 원에서 『주자전서』를 들여왔다. 이후 백이정이 직접 원에 건너가 성리학을 배워 와서 이제현과 박충좌 등에게 전수하였다. 그리고 충선왕 때 이제현은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관련 서적을 구해와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 원 간섭기의 개혁 정치와 신진 사대부의 성장

권문세족의 발호로 관료의 인사와 농장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의 노력은 충선왕 때부터 신진 사대부와 함께 시도되었으나, 원의 간섭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어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 추가- 공민왕의 업적

반원자주	왕권강화
□ 기철을 중심으로 하는 친원파 숙청 □ 내정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몽골식 관제를 폐지하고 2성 6부로 복구하였으며, 원의 연호 및 몽골 풍습을 금지시킴 □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 땅 회복 □ 요동 공략 시도	□ 정방의 폐지 □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하고[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 과거 제도 정비하여 많은 신진사대부 등용 □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킴

⇒ 개혁의 실패 원인: 원나라 간섭, 공민왕·신돈 제거, 개혁세력인 신진사대부의 세력 미약, 홍건적과 왜구의 빈번한 침략으로 사회 불안

💡 오답노트

② 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인 이규보(→이제현)는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이규보는 성리학 수용 이전인 무신 집권기 때 활동하던 인물이다

♣ 이규보(1168~1241)

무신 집권기 활동했던 문신이자 명문장가로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국이상국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명왕편」 등이 있다.

13. [정답 및 해설] ④

♣ 한글의 창제와 이용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한자를 써 오면서 이두나 향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유 문자가 없어서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맞으면서도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좋은 우리의 문자가 필요했다. 더욱이 조선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국가의 통치이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피지배층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문자의 창제가 요청되었다.

이에, 세종은 일부 유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고 한글을 창제한 후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1446년).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뛰어난 문자이다.

조선 정부는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세종 대에는 최초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왕실 조상이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 부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하였다. 세조 대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월인석보』, 『석보상절』(단 석보상절은 세조가 세종의 명을 받아 세종 대 편찬) 등 불경을 언해(한글로 풀어쓰)하였다. 이후 중종 대에는 언문청을 설치하고 한글을 보호하였고 최세진의 『훈몽자회』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리들이 한글을 배워 행정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채용 시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하였다.

💡 오답노트

④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글로 간행될 수 없었다 → 두 권의 책 모두 한글로 간행되었다.

14. [정답 및 해설] ①

♣ 향촌 사회의 운영

향촌은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향은 행정 구역상 군현의 단위를 말하며, 촌은 촌락이나 마을을 의미한다.

향촌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으며,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경재소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사림은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며, 족보 편찬을 통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향약의 보급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식을 만들었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촌락의 운영

촌락은 농민 생활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정부는 조선 초기에 자연촌 단위의 몇 개의 이(里)를 면으로 묶은 면리제를 통해, 그리고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오가작통제를 통화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오가작통제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것이다.

💡 오답노트

① 사림은 도덕과 의리의 기본 서적인 『대학』(→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여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소학

『소학』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등 유교사회의 도덕규범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15. [정답 및 해설] ③

♣ 정선의 '진경산수화'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 오답노트

- ① 서양화 기법을 수용하여 →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으며, 개성있는 그림으로 18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남녀 사이의 애정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 **신윤복**은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 ②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 **김홍도**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발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이런 그림에서 18세기 후반의 생활상과 활기찬 사회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 ④ 고금의 필법을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갖춘 글씨체를 창안하였다. → **김정희**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16. [정답 및 해설] ④

♣ 동학의 창시

동학은 19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족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민중의 환영을 받았다. 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반봉건),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반외세)을 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하게 생각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나갔다.

📌 오답노트

- ④ 제3대 교주인 손병희는 친일세력을 내쫓고,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창시된 대종교와 통합하여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였다.
→ 동학은 제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친일 세력(이용구)을 내쫓고 천도교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만세보라는 민족 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대종교와는 관련성이 없다.

♣ 대종교

나철, 오기호 등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고 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해외 항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7. [정답 및 해설] ②

㉠ 시기적으로 대한제국 말기(애국계몽기)의 국학연구와 일제강점기 때의 국학연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 대한제국 말기(애국계몽기) 국학연구

조선 후기 실학의 전통에서 비롯된 국학 연구는 대한 제국 말기인 애국 계몽 운동 시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국어와 국사를 연구하여 민족의식을 높이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 문화를 지키려 하였다.

국어 분야에서는 1907년에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애국 계몽 운동 시기에 신채호, 박은식 등의 활약에 힘입어 근대 계몽 사학이 성립되었다. 이들은 민족 의식과 애국심을 키우고,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고자 역사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나라를 구한 위인의 전기를 써서 보급하고, 외국의 건국과 흥망의 역사서를 번역하여 민족의 독립 의지와 역사의를 높여 하였다.

신채호는 대한 매일 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 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최남선, 박은식 등은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실학자의 저서를 비롯한 고전을 다시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 오답노트

② 백남운에 의해 대두된 사회경제사학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1930년대(일제 강점기) 백남운 등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을 이론을 반박하였다.

♣ 일제 강점기 국사 연구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은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 연구 방법론이 체계화되어 민족주의 사학(박은식, 신채호 등), 사회 경제사학(백남운), 실증주의 사학(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두하였다.

18. [정답 및 해설] ③

♣ 근대 문물과 시설

① 박문국에서는 신문을 발간하였고, 기기창에서는 서양무기를 제조하였다. → 박문국(1883)에서는 근대적 인쇄기술을 도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관보)인 한성순보를 발행하였고, 영선사의 건의로 세운 최초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1883)에서는 서양무기를 제조하였다.

② 근대 교통시설로서 서울에서부터 전차와 기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 근대 교통시설로서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의 전차(1899)가 운행되고, 노량진(서울)과 제물포(인천) 사이에 최초로 경인선(1899)이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④ 서울에는 명동성당(1898)과 덕수궁 석조전(1910)과 같은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다.

📌 오답노트

③ 서양의학이 보급되면서 근대의료시설인 광혜원을 설립하여, 자석영 → (알렌)에게 책임을 맡겼다.

♣ 광혜원

갑신정변 당시 칼에 찔려 위태롭던 민영익을 미국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알렌이 살려낸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알게 된 정부는 광혜원을 세웠다. 정부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서울 재동에 설립·운영하면서 의료 선교사 알렌으로 하여금 운영과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 [정답 및 해설] ③

♣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에 따른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숨은 뜻은 우리의 고유문화를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국권 강탈 후 조선교육령을 만들어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을 통해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3·1운동(1919) 이후 일제는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를 바꾸었다. 1920년대(문화통치, 민족분열 통치)에는 조선어를 필수 과목(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으로 규정하고, 경성 제국 대학(1924년)도 설립하였다. 표면상 일본인 교육과 대등하게 보이도록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차별은 여전하였다.

1930년대 만주 침략 이후에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을 강조하여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고, 한국사 왜곡을 심화시켰다.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편수회는 식민주의 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를 편찬하여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다.

종교 활동 역시 총독부의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독립 운동가들이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였다.

📌 오답노트

- ③ 1930→(19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선어를 선택→(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최초의 대학기관인 경제국대학(1924)을 설립하였다.

20. [정답 및 해설] ④

♣ 통일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통일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 정책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9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그 후의 남북한 대립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1971)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1991)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굳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1991)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 오답노트

- ① 1960년→(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② 1972년→(1985년)에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③ 1985년→(1972년)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 잘 이겨내시어 합격의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각미남 석T